

문화와 경제의 불협화음: 문화산업에 대한 재해석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디어 문화연구소 소장

핵심 되는 말 :

문화와 경제, 문화경제학, 문화산업, 창조산업

Key Words :

Culture and Economy, Cultural Economy, Culture Industry, Creative Industry

노명우(Roh, Myung Woo)

노명우는 2001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연구, 비판이론, 미디어 연구이며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미디어 문화연구소의 소장이다. mwnho@naver.com

목차

I. 문화와 경제의 불협화음에 대한 프롤로그

II. 문화와 경제의 불협화음의 기원

1. 비경제로서의 문화 : 유용성과 무용성에 대한 대립과 노동 중심적 근대의 탄생
2. 근대의 지식체계와 인문학적 문화연구 전통

III. 문화와 경제의 결합에 대한 해석 시도

1.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와 문화산업
2. 버밍햄 학파와 문화와 경제

IV. 문화와 경제의 협화음을 위한 에필로그

국문 요약

최근 문화의 산업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와 경제의 관계는 새로운 이론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지만, 문화-경제에 대한 연구는 근대적 학문분류체계에 의한 경계에 의한 방법론 분절화에 따라 아직까지 취약하다.

본 논문은 문화-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의 발전을 위해 문화주의와 경제주의의 기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의 경제화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문화산업론과 창조산업론의 검토를 통해 문화-경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 문화와 경제의 불협화음에 대한 프롤로그

인간은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동시에 인간은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두 명제는 모두 타당하다. 타당하기 그지없는 이 두 명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단순하게 먹고 사는 존재에서 벗어날 때 인간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보장하는 경제가 인간의 필요조건이라면, 인간의 자기계발을 완성하는 문화는 인간의 충분조건이다. 진정한 인간됨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인류 역사 이래 인간됨의 필요 충분조건을 모두 보장해준 사회는 없었다. 개인들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로 대립되는 인간 존재양식이 나타난다. 문화와 경제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 한편으로 인간은 교양 없는 경제적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궁핍하기 짝이 없는 무능력한 예술가형 인간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와 경제의 양자택일적 분열은 개인의 존재양식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는 최소조건인 경제를 우선시 하느냐 혹은 완성조건인 문화를 우선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는 중요한 단절의 시작이다. 근대 이전의 사회는 비록 소수의 특권계층의 지향점이 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와 예술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근대의 출현과 더불어 강조점은 보편적인 최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로 이동하였다. 경제적 발전이 달성되고 난 이후에야 문화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 자유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의 왕국에서의 노동의 고통을 견디어야 한다는 금욕주의론, 일개미에 대한 찬양과 게으른 베짖이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는 노동중심주의는 가장 전형적인 근대적인 문화와 경제 사이의 관계 해석을 반영한다.

이러한 근대적 해석은 문화는 비경제이며, 경제는 비문화라는 전제 하에서만 타당하다. 하지만 문화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는 비경제라는 근대적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이 출현하고 있다. 문화는 경제화되고 경제는 문화화되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경제는 경제학의 연구대상이며, 문화는 인문학의 연구대상이라는 학문 간의 '경계짓기' 관습이 워낙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인(Home oeconomicus)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문화적 욕구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못했고, 또한 인문학은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욕구에 대해 무시했다. 18세기 후반 경제학이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경제학적 모델에 따라 설명하려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는데, 경제학적 모델은 인간을 경제인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를 경제인 모델에 따라 파악한다. 경제학을 분과학문으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아담 스미스는

1776년 잘 알려진 『국부론(Inquiry into the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s)』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에서의 자기조직화를 사회의 기본원리로 파악하였고, 인간 행위를 인간의 의지로부터 파악할 수 없으며,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개인들은 ‘시장’을 통해 최적의 집합 결과에 도달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제학이 아담 스미스 이래 ‘시장’을 중심으로 인간 행위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문화적 과정에 개입하는 문화적 가치는 경제학의 분석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¹⁾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경제와 문화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명하려는 시도 또한 출현하였다. 존 러스킨(John Ruskin)이 교환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한 이후 경제학에서 제외되었던 문화적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²⁾ 공연예술의 수요구조와 공급시스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보몰(Baumol)과 보웬(Bowen), 경제발전과 문화적 가치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한 헌팅턴(Huntington)³⁾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제학이 문화적 과정에 대한 적극적 주목을 통해 이른바 문화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한 것과는 달리 인문주의적 문화연구에서 문화의 경제적 층위에 대한 분석은 매우 취약하다. 문화산업을 통해 현대의 야만을 분석한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계몽의 변증법』 이후 기호의 정치경제학을 분석한 보들리아르(Baudrillard), 상품미학 분석을 수행한 하우크(Haug) 등이 있으나 해석학 전통에 충실한 인문주의적 문화연구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영국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조차도 문화의 경제화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정체성의 정치, 재현의 정치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II. 문화와 경제의 불협화음의 기원

흔히 문화는 비경제이며 경제와 반사적 대립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된다. 인문주의자들은 과도한 경제 중심주의에 의해 문화가 포섭되면 황금만능주의와 천박한 문화적 풍토가 생긴다고 개탄하고, 반대로 경제주의자들은 문화는 그 어떠한 유용성도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추상적인 논의나 늘어놓은 무능력한 영역이라 치부한다. 인문주의자들과 경제주의자들의 이러한 완고한 태도가 지속되는 한 문화와 경제는 협화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불협화음만을 산출해 낸다. 문화와 경제의 불협화음의 기원은 문화의 본질을 비경제로 파악하고 문화와 경제 사이의 가치 서열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유용성과 무용성의 관계에 대한 담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1) 참고 Tanner, Jakob, 2004, "Kultur in den Wirtschaftswissenschaften und kulturwissenschaftliche Interpretation ökonomischen Handelns", *Handbuch der Kulturwissenschaften*, Stuttgart Weimar: J. B. Metzler.

2) 강웅선, 2001, "문화경제학의 원류와 탄생", 『문화경제학 만나기』, 서울: 김영사, p. 55.

3) 참고 Huntington, Samuel P. et. al, 2001, 이종인역,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김영사.

1. 비경제로서의 문화: 유용성과 무용성에 대한 대립과 노동 중심적 근대의 탄생

문화와 경제를 가치 서열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담론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 사이의 근본적인 분열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대립되는 두 가지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인생 전체는 더 나아가 여가와 일, 전쟁과 평화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행위 전체는 필요한 것과 유용한 것을 지향하는 행위와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와 비경제의 가치서열을 만들어내고, 미학적 개념인 무용성(아름다움)에 경제적 개념인 유용성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용성 추구는 유용성 추구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무용성은 근대적 의미처럼 경제적 가치 없음이 아니라 하층계급과 노예를 생산수단화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현상을 의미했다.⁵⁾

대표적인 ‘유용한’ 인간의 행위는 노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구속되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행위이기에 자유로운 활동일 수 없고⁶⁾, 필연의 영역인 노동보다 무용한 것에 몰두하는 포괄적인 문화 행위는 인간행동의 목표이자 모든 인간 행동이 도달해야 하는 종착점이었다. 유한자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한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유한자 인간은 자신의 산출물을 통해 무한자가 될 수 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사멸하지만, 인간의 창조적 산물(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문화적 행위와 문화적 행위의 결과물이라 부를 수 있다)은 무한하다. 유용성과 무용성에 관한 고대적 위계는 유한자에 머무르는 인간과 유한자에서 무한자로 격상될 수 있는 행위에 몰두하는 인간 사이의 차별에서 기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화를 통해 유한자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동물과 구별되는 참된 자유인이며, 유한자의 한계에 갇혀 있는 노예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이분법이 인문학적 문화중심주의의 기원이라면, 근대는 고대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배태해냈다. 근대는 고대적 세계관을 전도시켰다. 인문주의적 고대와 달리 근대는 고대적 가치를 뒤집어 경제적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와 비경제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근대는 “모든 전통을 전도하고, 행위와 관조의 전통적 지위뿐만 아니라 활동적 삶 내의 전통적 위계 구조를 전도하며, 모든 가치의 원천인 노동을 예찬하고 전통적으로 이성적 동물이 차지했던 지위로 노동의 동물을 상승”⁷⁾시켰다. 근대적 세계관은 노동을 예찬하는 노동중심적인 세계관이다. 고대와 근대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태도의 차이로 파악될 수 없다. 문화와 경제의 대립은 태도와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문화와 경제의 대립은 근대의 출현과 관련된 ‘사회’의 출현, 사회의 출현으로 인한 공동체의

4) Aristotle, *Politics*, Marcuse, H., 1982, 최현·이근영 역, 『미학과 문화』, 서울: 범우사, p.8에서 재인용.

5) 참고 Aristotle, 1984, 최명관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서광사.

6) Arendt, Hannah, 1996,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p. 62.

7) 같은 책, p. 140.

파괴와 관련 있다.

공동체 개념의 소멸과 공동체를 대체하는 '사회' 개념의 등장은 고대적 가치서열의 전도와 함께 진행된다. "사회가 삶의 과정 자체를 공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사회적 영역이 비교적 최단시간 안에 모든 근대의 공동체를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로 변형시켰다는 사실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 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이다."⁸⁾

근대가 고대의 가치질서를 전도하고, 노동을 인간 활동의 핵심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와 경제의 고대적 관계 또한 전도되었다. 고대적 세계와 달리 근대적 경제주의는 경제를 인간 활동의 핵심으로, 반면 문화는 잔여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근대적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고대적 기원을 갖는 인문주의적 전통은 위협받는 고대적 세계관을 복구하기 위해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하였다.

2. 근대의 지식체계와 인문학적 문화연구 전통

신학적 지식이 지배했던 중세와의 '단절'을 통해 형성된 '근대적' 지식체계는 인간의 지식을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으로 분류한다. 근대적 지식분류체계의 원형은 베이컨(Bacon)의 학문 분류체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이컨은 두 가지 전제 위에 근대적 지식체계를 분류하였다.⁹⁾ 베이컨의 첫 번째 전제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이 존재한다는 뉴턴(Newton)적 모델이며, 또 다른 전제는 데카르트(Descartes)적 이원주의, 즉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물리세계와 사회적 영적 세계 간에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전제에 충실한 근대적 지식 개념은 자연과학과 비자연과학의 대립이라는 스노우(Snow)가 지적하는 '두 개의 문화'¹⁰⁾가 출현하는 바탕이었다. '두 개의 문화'는 보편적인 법칙 탐색을 목표로 삼는 양적인 지식체계인 자연과학과 개성기술적인 질적인 지식체계인 인문학은 통약불가능한 절대적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근대적 자연과학의 등장이후 형성된 인문학은 자연과학적 모델의 확장과 확산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근대적 인문학은 자연과학적 지식 모델을 인간사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려는 실증주의의 방향에 반대하는 반실증주의를 추구하였다.¹¹⁾ 자연과학을 지식의 모델로 설정하는 실증주의적 경향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강력하게 등장했다면,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늦었던 독일에서는 근대에 대한 비판이 실

8) 같은 책, p. 99.

9) Wallestein, Immanuel, 1996, 이수훈역, 『사회과학의 개방』, 서울: 당대, p. 16.

10) 참고 Snow, C.P., 2001, 오영환역, 『두 문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11) 자연과학의 확장경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는 명확했지만, 그 대안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 "어떤 때는 문과학(arts)이라 불리고, 어떤 때는 인문학으로 어떤 때는 문학(letters 또는 belles-lettres)으로, 어떤 경우에는 철학으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문화', 혹은 독일어로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으로 불렸다". Wallestein, Immanuel, 1996, 이수훈역, 『사회과학의 개방』, 서울: 당대, p. 20.

증주의적 과학 모델 비판이라는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이해와 설명을 결합시키려 했던 베버(Weber)의 이해 사회학, 딜타이(Dilthey)의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 리케르트(Richert)의 문화과학(Kulturwissenschaft) 모델은 베이컨 이후 정립된 근대적 지식과학관에 대한 반비판으로서 자연과학의 방향에 대립되는 인문과학의 방향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실증주의적 기획이 모든 과학은 동일하다는 보편성 주장이라면, 실증주의의 반사적 대립으로 등장한 딜타이의 정신과학론은 모든 과학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과학 사이의 통약 불가능한 차이에 대한 강조로 귀결된다.

딜타이에게 자연과학의 대당은 정신과학이었다. 딜타이는 “자연과학에 대항해서 정신과학의 고유한 대상영역과 접근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정신과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자율성을 찾고 역사적-사회적 의미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¹²⁾를 시작하였다. 딜타이에게 정신과학의 자율성 회복은 실증주의적 자연과학의 확장이 산출한 근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 따라서 그는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개별과학들의 상호연관성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개별 자연과학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에 견줄 만한 또 다른 통일성을 부여하여 이를 통해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¹³⁾ 딜타이에게 순수 객관적 세계인 자연세계와 달리 정신적 세계는 순수한 주관적 세계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정식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은 인과모델에 입각한 자연과학의 방법론과는 달리 이해와 해석을 방법론으로 삼는다. 그에 따르면 “이해와 해석은 정신과학을 실현시켜주는 방법이다. 모든 기능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해와 해석은 모든 정신과학적 진리들을 담고 있다.”¹⁴⁾

리케르트에 의하면 실증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과학은 하나로 수렴될 수 없다. 따라서 딜타이에게 과학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는 자연과학의 대당을 ‘문화과학’이라 명명했다. 그는 과학을 지식의 대상영역과 대상영역을 다루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케르트의 이러한 자연 개념 규정과 자연에 대립되는 문화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자연과 문화를 각각 다루는 과학은 전혀 다른 기반에 놓여 있는 상이한 과학이다. 리케르트에게 자연과 문화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반사적 대당이다. 그는 두 과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지시한다. 그렇기에 리케르트는 자연과학이 일반화의 법칙을 지향하는 힘이라면, 문화과학은 개별을 지향하는 힘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서술될 수 없는 단순한 이질성에서 서술될 수 있는 개성을 이끌어내는, 개성화하는 개념 구성”¹⁵⁾만이 “문화의 개념이 어떻게 역사를 과학적으로 가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문화과학에서 문화현상의 보편적 ‘본성’을 밝혀내길 원할 수 없고, 개성화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¹⁶⁾는 것이다. 문화현상을 해석학적인 전통에서 연구하는 인문학적 문화연구 전통은 문화를 인간학의 연장에서만 파악하며, 문화현상은 인간의

12) 김덕영, 2003,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서울: 한울, p. 50.

13) 같은 책, p. 51.

14) Dilthey, W., 2002, 이한우역, 『체험 표현 이해』, 서울: 책세상, p. 39.

15) Rickert, H., 2004, 이상엽역,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서울: 책세상, p. 151.

16) 같은 책, p. 152.

내적 본질이 외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해석학을 추구하는 인문학적 문화연구 방법론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연구 방법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석학적 문화연구 전통은 유용성과 무용성 사이의 고대적인 대립관계에서 무용성에 대한 근대적 재해석으로 탈바꿈되었다. 이 결과 자연과학은 유용한 학문으로, 반면 인문학은 무용한 학문으로 대립되게 되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한층 격화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분리 경향 속에서 제3의 방향, 즉 자연과학을 모방하는 인문과학인 사회과학의 출현은 인문학의 무용성 세계와 자연과학의 유용성 세계 사이의 대립을 보다 복잡한 방향으로 재편하였다.

III. 문화와 경제의 결합에 대한 해석 시도

사회과학의 등장 이후 문화와 경제의 근대적 관계는 해명해야 할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문화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막스 베버(Max Weber)의 통합 방법론적 저작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래, 경제학은 인간을 이해할 때 경제인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문화적 욕구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못했고, 또한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이해하는 인문학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욕구에 대해 무지했다. 경제적 행위의 문화적 차원을 도외시하는 인문주의적 문화연구,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구별되는 ‘경제인’ 모델에 따른 경제학적 인간연구 사이의 대립이 지속되는 동안 ‘문화적 근대’라 부를 수 있는 ‘대중문화’ 현상은 19세기 이래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대중문화 현상은 문화의 상품화를 통해 형성되었다. 문화적 근대는 스폰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문화 ‘시장’에서 작품 판매를 통해 직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문화예술인이 등장하고 이들의 작품을 시장과 매개시키는 판매상 등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중문화’의 확산은 소수의 교양계급만이 향유하던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탈계급적, 탈신분적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의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대중문화는 근대 이전의 귀족적 문화전통과의 급진적 단절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적 근대’로 해석될 수 있다.¹⁷⁾ 대중문화의 확산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대중문화는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¹⁸⁾, 동시에 대중문화는 상품으로 가공된 문화현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내가 대중문화 확산현상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문화의 상품적 성격의 등장이다. 문화현상에 스며든 상품적 성격은 19세기의 해석학적 문화연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문화의 속성이었다. 즉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중문화 현상이 확산

17) “봉건주의 체제 하에서 여가활동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가 속한 계층에 맞는 여가활동만을 택하여 즐기도록 교회나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리하여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는 서로 문화적 접촉이 전혀 있을 수 없었고, 두 신분간에 중간적인 중산층이라는 것도 없었다. 따라서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는 전혀 갈등도 접촉도 있을 수 없었다.” Lowenthal, L., 1998, 강현두역, “대중문화론의 역사적 전개”,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출판, p. 37.

18) 참고 Schwarz, V.R., 2006, 노명우 박성일역, 『구경꾼의 탄생』, 서울: 마티.

된 결과 문화에 대한 연구는 해석학적 이해와 더불어서 상품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였다. 대중문화현상의 확산 이후 문화연구의 과제는 유용성과 무용성의 질적 차이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유용성과 무용성의 결합현상, 즉 경제와 문화의 융합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로 변화하였다.

1.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와 문화산업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문화의 경제화를 지칭하기 위해 1947년 『계몽의 변증법』에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대중문화 개념과 구별되는 문화산업 개념의 필요성을 아도르노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그러한 표현(대중문화)을 그 주창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을 시작부터 배제하기 위해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것은 대중예술의 현 시대의 형식, 즉 대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문화와 같은 것의 문제이다. 후자와 문화산업은 극단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은 오래되고 친숙한 것을 새로운 성격으로 융합한다. 문화산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중의 소비를 위해 제조되고 상당한 정도로 소비의 성격을 결정하는 생산품은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다. 개별적인 분야들은 구조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최소한 서로에게 적합하거나 또는 차이가 없이 한 체계로 정리되고 있다. … 문화산업은 의도적으로 위로부터 문화의 소비자들을 통합한다. 둘의 희생을 통해서 문화산업은 수천년 동안 분리된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의 영역들을 결합시키려고 한다.”¹⁹⁾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대중문화의 개념을 문화산업의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의 자생성에 대립하는 점증하는 문화를 상품논리에 의해 의식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하는 계기의 위험성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문화산업론이 겨누고 있는 비판의 대상은 상품처럼 소비를 겨냥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되는 상부구조와 문화현상의 결합이 야기하는 상황이다. 문화산업론은 자본의 형식적 포섭이 완성되고 실질적 포섭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관습적으로 상부구조적 현상으로만 파악되었던 문화가 경제와 융합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융합현상임을 지적한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문화산업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생활은 문화산업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적인 이해관계의 요구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2)문화산업은 개인의 여가 시간을 착취한다. (3)문화산업은 여가활동을 상품화한다. (4)문화산업은 대중들의 욕구를 조작한다. (5)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자유 선택은 선택의 폭이 제한된 허울의 명목일 뿐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분석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자본의 보편적인 법칙”으로부터 탄생한다. 자본의 법칙은 그 내부에 독점화를 유발하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 비판대상으로서의 문화산업은 문화의 상품화 일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의한 문화산업의 독점화 경향이며, 독점화된 문화산업

19) Adorno, Th. W., 1995, 윤민재 남은영역, “문화산업의 재고”, 『문화와 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 373.

이 유발하는 정치적 효과이다. 문화산업은 전통적인 엘리트에 의한 문화독점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독점 현상을 빚어낸다. 문화산업의 독점화로 인한 문화생산의 독점은 두 가지 또 다른 독점을 낳는다. 문화산업이 독점화되면 문화상품 공급과 더불어 문화상품이 유통되는 중요 통로인 매체의 독점이 이루어진다.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공급 독점과 매체를 독점할 때 독점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완수한다. 이중적 의미로 독점화된 문화산업은 탈정치적인 듯 보이지만, 독점화된 문화산업은 은폐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기에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바로 문화산업에 내재된 정치적 효과에서 현대적 야만의 징후를 읽는다.²⁰⁾

2. 버밍햄 학파와 문화와 경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문화산업론이 문화의 경제화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 이론적 입장이라면, 영국의 버밍햄 학파는 형성기의 엘리트주의적 문화해석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비판이라는 특이한 정세 때문에 대중문화의 정치적 저항가능성에 비해 문화와 경제의 융합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버밍햄 학파의 문화연구는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명시화될 수 있는 관념이라기보다 다양한 관심들이 수렴되는 장”²¹⁾이었는데, 버밍햄 학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이론적 지향은 (1)엘리트주의적 문화해석을 비판하고 대중문화를 문화 분석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2)마르크스주의적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이었다.²²⁾

이들은 문화적 기록이 경제적 요인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사회 계급과 계급의식의 형성을 다룬다. 문화를 교육, 여가 및 미적 소비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이상과 동일시하는 반민주적인 정의를 비판하면서 노동계급을 위한 문화를 복원하려는 문화연구의 프로그램을 지향하였다. 문화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해석을 거부하는 버밍햄의 전통은 인간의 행위 구조에 대한 천착으로 연결된다. 윌리엄스는 문화를 기술적이고 민속학적인 의미의 기록적인 용례와 연관시킨다. 윌리엄스에게 문화란 “특정한 실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관습과 습속의 단순한 기술적인 합계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실천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 모든 실천들의 상호관계의 합계이다.”²³⁾ 문화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것

20) 참고 노명우, 2005, 『계몽의 변증법: 야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서울: 살림.

21) Stuart Hall, 1998, 강현두역, “문화연구의 두 패러다임”,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 p. 494.

22) “이들이 공통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토대/상부구조의 비유와 결정성에 대한 ‘환원론적’ 또는 ‘경제주의적인’ 정의이다.” “여러 중요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고경향, 즉 지배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의 윤곽이 여기서 드러난다. 그것은 ‘문화적인 것’을 단순히 반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찌꺼기처럼 이해하려는 데 반대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은 문화가 모든 사회적 실천들과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며, 또한 모든 실천은 인간 활동의 공통된 양식, 즉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감성적인 실천일반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그것은 관념적 힘과 물질적 힘 간의 관계를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방식으로 공식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여기서 특히 토대를 단순한 의미에서 경제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짓는 데 반대한다.” Stuart Hall, 1998, 강현두역, “문화연구의 두 패러다임”,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 p. 499-500.

23) Stuart Hall, 1998, 강현두역, “문화연구의 두 패러다임”,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 p. 495.

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식임을 강조하는 버밍햄의 전통은 문화의 해석자, 생산자로서의 대중의 역할을 강조한다. 버밍햄의 전통에 따르면 문화는 생산자의 손을 벗어나 대중에 의해 소비의 과정에서 새롭게 생산되며 재구성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문화분석이란 특정한 삶의 방식에 숨어있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문화분석의 목적은 그 문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이는 문화가 겪은 실제적 경험과 중요한 공통의 요소, 경험을 공유한 특정한 공동체를 말한다. 이는 윌리엄스가 감성구조라 부르는 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²⁴⁾

문화분석의 대중주의를 추구하는 버밍햄의 전통은 아도르노의 문화분석 방법론을 모더니즘적 엘리트주의라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의 핵심 쟁점은 버밍햄 전통 속으로 왜곡되어 수용되었다. 버밍햄의 전통에서 아도르노는 버밍햄이 비판하는 아놀드와 리비스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고, 그 결과 문화와 경제의 융합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문화산업론의 핵심은 버밍햄의 반엘리트주의에 의해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버밍햄의 또 다른 강박관념은 재현의 정치학, 정체성의 정치학과 비교할 때 문화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천착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⁵⁾

하지만 홀은 버밍햄 전통을 회고하면서 정치경제학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연구경향은 문화연구에서 좀 더 고전적인 ‘정치경제학’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이다. 이 입장은 토대/상부구조에 관한 이전의 관점을 부활시켜, 최종 심급에서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제의 결정성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대안적 패러다임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결정의 위계를 찾으려 한다. 이 입장은 문화생산의 경제적 과정과 구조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 더욱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이윤, 착취, 잉여가치 그리고 상품으로서 문화에 대한 분석 등과 같은 좀 더 고전적인 용어들을 통해 매우 적절히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⁶⁾

영국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의 교재로 출간된 Production of Culture/Cultures of Production은 이러한 의미에서 홀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한 문화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해석할 만하다. 뒤 가이(Du Gay)가 편집한 이 책은 정체성, 재현의 문제에 집중된 문화연구와 달리 정체성(Identity), 재현(Representation), 조절(Regulation), 생산(Production), 소비(Consumption)라고 하는 문화의 순환(Circuit of Culture)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의 경제화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뒤 가이는 ‘문화 경제(cultural econom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영국 문화연구 전통 내부의 이론적 취약점을 보강하려 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주

24) Story, John, 2000, 백선기역,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 83.

25) Chris Barker의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와 John Story가 편집한 『문화연구란 무엇인가』에서도 문화와 경제의 혼용현상에 대한 분석들은 아주 미약하게 발견된다.

26) Stuart Hall, 1998, 강현두역, “문화연구의 두 패러다임”,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 p. 511.

의 정치경제학 연구방법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상부구조를 경제적 토대로 환원시키는 정치경제학의 환원주의적 방법론과 달리 뒤 가이는 경제적 삶 속에 숨어 있는 문화적 의미, 즉 경제 행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²⁷⁾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모델이 정치경제학 전통의 비판적 계승이라면, 버밍햄은 정치경제학 모델과의 급진적인 단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모델이 경제에 의한 문화의 포섭화 과정(문화의 경제화)에 집중한다면, 버밍햄 모델은 문화에 의한 경제포섭(경제의 문화화)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문화의 경제화 현상 분석을 간과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²⁸⁾ 문화연구 내부의 경제주의(economism)에 대한 관습적 거부(ritual rejection)²⁹⁾는 독점자본의 성장에 의한 사회문화적 변동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준다. 문화연구가 정체성과 재현의 정치학에 몰입하는 동안 자본의 독점화 현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즉 레닌과 힐퍼딩 등이 제국주의론을 통해 지적했던 산업자본의 독점화 현상과 더불어 문화산업자본의 전지구적 독점화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이 결과 문화연구가 정체성과 재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문화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초국적 자본관계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동안 문화의 경제화 현상은 이른바 ‘문화컨텐츠’³⁰⁾라는 새로운 기호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정국이 발생하였다.

IV. 문화와 경제의 협화음을 위한 에필로그

최근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화와 경제의 융합 현상을 탐색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³¹⁾ 창조산업은 전통적인 문화산업 보다 광범위한 문화 관련 산업을 포섭하고 경제와 문화의 융합에 의해 출현하는 새로운 동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전통적인 문화산업 개념은 박물관, 시각예술과 공예, 문화교육, 방송과 영화, 음악, 실험예술, 문학, 도서관 등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경제의 융합현상을 다루고 있었다면, 창조산업은 이 뿐만 아니라 광고, 건축, 디자인, 게임, 소프트웨어로까지 확산된 경제화된 문화영역을 다룬다.³²⁾ 또한 ‘창조성’ 원리에 따른 도시 공간의 재구축을 주장하는 ‘창조도시’론³³⁾과 미래의 변화는 제조업적인 근면성과 금융주의가 아닌 ‘창조적 계급’의 출현여부에 달려

27) 참고 Du Gay, Paul(ed.), *Production of Culture/Cultures of Production*, London: Sage, p. 3-6.

28) 버밍햄의 전통은 문화연구방법론에서도 에쓰노그래피(ethnography)를 중요시하고,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9) Robotham, Don, 2005, *Culture, Society and Economy*, London: Sage, p. 1-6.

30) 문화컨텐츠라는 신종 용어는 지식경제론, 정보혁명론과 결합하면서 문화의 경제화를 긍정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화된 문화는 더 나아가 21세기에 성장의 새로운 요소이자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변주된다.

31) 참고 Hartley, John(ed.), 2005, *Creative Industries*, Malden/Oxford/Carlton: Blackwell, Howkins, John, 2002, *The Creative Economy*, London: Penguin.

32) Hartley, John(ed.), 2005, *Creative Industries*, Malden/Oxford/Carlton: Blackwell, Florida, Richard, 2005, p. 30.

있다는 ‘창조계급론’³⁴⁾과 더불어 창조산업론은 문화산업의 단순 대체를 벗어나 21세기의 사회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창조산업론은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먼저 창조산업론은 문화의 경제화, 경제의 문화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문화-경제 영역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창조성은 문화는 무용성이고 경제는 유용성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문화의 유용성 입증을 통해 경제와 문화의 절합을 이론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담론이다. 하지만 창조산업론이 ‘창조성’의 확산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경제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여할 경우 창조산업론은 문화와 경제의 절합을 파악하는 제3의 담론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문학적 주장이나 경제에 포섭된 문화담론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가 주도적 담론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창조성’의 확산 여부는 전적으로 경제적 잣대에 의한 창조성의 유용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창조산업의 내부에는 전통적인 산업적 제조업과는 구별되는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결합방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창조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경제주의적이다.

그렇기에 창조산업론이 문화의 유용성을 입증하되, 분석 방법론에서 문화영역에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경제논리에 의한 문화논리의 왜곡을 분석하지 못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경쟁력 담론과 결합하면서 경제주의의 또 다른 변종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창조산업론의 합리적 핵심을 보존하되, 창조산업론의 패러다임을 다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결합시킬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창조산업론은 경제주의적 세계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이지만, 현실은 경제주의적이다. 현실의 원리는 ‘시장’ 중심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세계에서 창조성의 확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다. 지독한 역설이지만 경제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경제에 대한 연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창조산업론이 미래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가, 혹은 변종된 신자유주의 담론으로 귀결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경제분석 능력에 달려 있다.

33) 사사키 마사유키, 2004, 정원창역, 『창조하는 도시』, 서울: 소화, Landry, Charles, 2005, 임상오역, 『창조도시』, 서울: 해남.

34) Florida, Richard, 2005, 이길태역,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서울: 전자신문사.

| 참고 문헌 |

- 강응선, 2001, “문화경제학의 원류와 탄생”, 『문화경제학 만나기』, 서울: 김영사.
- 김덕영, 2003,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서울: 한울.
- 노명우, 2005, “노동과 여가에 관한 두 개의 패러다임”, 『문화사회』, 서울: 문화과학사.
- 노명우, 2005, 『계몽의 변증법: 야만으로 후퇴하는 현대』, 서울: 살림.
- 사사키 마사유키, 2004, 정원창역, 『창조하는 도시』, 서울: 소화.
- Adorno, Th. W., 1995, 윤민재 남은영역, “문화산업의 재고”, 『문화와 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Adorno, Theodor W. and M. Horkheimer, 2001, 김유동역,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 Arendt, Hannah, 1996, 이진우 ·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Aristotle, 1984, 최명관역, 『니코마스 윤리학』, 서울: 서광사.
- Bacon, F., 2001, 진석용역, 『신기관』, 서울: 한길사.
- Bacon, F., 2002, 이종흡역, 『학문의 진보』, 서울: 아카넷.
- Barker, Chris, 2000.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 Baudrillard, J., 1992, 이규현역,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audrillard, J., 1994, 배영달역, 『생산의 거울』, 서울: 백의.
- Brown, Vivienne, 1996, 전효관외 역, “경제의 출현”, 『현대성과 현대문화』, 서울: 현실문화연구.
- Comte, August, 2001, 김점식역, 『실증주의서설』, 서울: 한길사.
- Dilthey, W., 2002, 이한우역, 『체험 표현 이해』, 서울: 책세상.
- Du Gay, Paul(ed.), *Production of Culture/Cultures of Production*, London: Sage.
- Florida, Richard, 2005, 이길태역,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서울: 전자신문사.
- Hartley, John(ed.), 2005, *Creative Industries*, Malden/Oxford/Carlton: Blackwell.
- Haug, W. F., 1991, 김문환역, 『상품미학비판』, 서울: 이론과 실천.
- Howkins, John, 2002, *The Creative Economy*, London: Penguin.
- Huntington, Samuel P. et. al, 2001, 이종인역,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김영사.
- Landry, Charles, 2005, 임상오역, 『창조도시』, 서울: 해남.
- Lowenthal, L., 1998, 강현두역, “대중문화론의 역사적 전개”,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출판.
- Marcuse, H., 1982, 최 현 · 이근영 역, 『미학과 문화』, 서울: 범우사.
- Prokop, Dieter, 2003, *Mit Adorno gegen Adorno*, Hamburg: VSA-Verlag.
- Ransoem, Paul, 2005, *Work, Consumption and Culture*, London: Sage.
- Rickert, H., 2004, 이상엽역,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서울: 책세상.

- Robotham, Don, 2005, *Culture, Society and Economy*, London: Sage.
- Schwarz, V.R., 2006, 노명우 박성일역, 『구경꾼의 탄생』, 서울: 마티.
- Snow, C. P., 2001, 오영환역, 『두 문화』, 서울: 사이언스 북스.
- Steinert, Heinz, 2002, *Kulturindustrie*,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 Story, John, 2000, 백선기역,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Stuart Hall, 1998, 강현두역, "문화연구의 두 패러다임",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
- Tanner, Jakob, 2004, "Kultur in den Wirtschaftswissenschaften und kulturwissenschaftliche Interpretation ökonomischen Handelns", *Handbuch der Kulturwissenschaften*, Stuttgart Weimar: J. B. Metzler.
- Throsby, David, 2004, 성제환역, 『문화 경제학』, 서울: 한울.
- Turner, Grame, 2001, 김연중역, 『문화연구입문』, 서울: 한나래.
- Wallestein, Immanuel, 1996, 이수훈역, 『사회과학의 개방』, 서울: 당대.
- Wallestein, Immanuel, 2001, 백승욱역,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서울: 창작과 비평사.

A Dissonance between Culture and Economy: Culture Industry and Creative Industry

Roh, Myung Woo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jou University and Director of Centre for Media and Cultural Studies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culture and culturing production is one of the main symptom in the era of late capitalism. However, it is a matter of regret that the theoretical interest in Economy-Culture become usually started from limiting the concerns to the Economics or Humanities. This paper is designed to search for the origin of Economism and to develop a new perspective about the Economy-Culture Phenomena.